
“부주의와 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3)

WHO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350만여명의 지구촌 사람들이 질병이 아닌 불의의 사고, 폭력 등으로 인해 사망한다. 그 비율은 요즘 건강상의 큰 문제인 성인병의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선진국보다도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위해 이 “사고”의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WHO는 올해 보건의 날 주제를 “부상”으로 선정하고 이의 예방을 위해 나섰다. 본 내용은 WHO가 발표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앞으로 약 4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노상(路上) 이외의 음주와 폭력

음주운전과 노상(路上)의 참상과의 관계는 경찰 기록과 병원 기록들에 의해서 널리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음주가 부상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음주와 관련된 노상(路上)의 참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정, 직장, 학교나 오락장에서 일어나는 음주에 의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거의 입증된 바 없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에 의하면 많은 경우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은 음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아프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호주 등지의 자료들은 음주와 관련된 사고들이 인간적인 비극 뿐

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습관적 음주자들은 과음하는 경향이 있어서 추락, 화상, 약물 과량 복용, 익사, 자살, 살인 등을 저지를 위험이 높다. 다시 말해서, 부상의 위험이 큰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국과 미국 모두에서 음주와 관련된 사망의 약 45%는 우연한 부상이나 중독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약물 남용 프로그램의 기술 담당자인 Mr.Marcus Grant 는 이렇게 말한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부상은 과음과 관련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많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입증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음주와 관련된 부상에 대한

조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예방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첫 단계로서 기록관리를 잘할 것을 요구한다.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 또한 심각하다. 부부간의 불화, 배우자와 자녀방치, 절근, 빈곤 등이 그것이다.

최근 30년간, 세계적으로 주류 생산은 증가해 왔으며 몇몇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성장률을 웃돌았다. 이러한 공급은 와인, 독주, 그리고 특히 맥주의 수요를 창출했다.

선진국에서는 주류 소비량이 현상유지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추산에 의하면 최근 몇십 년간 아시아에서 500%, 아프리카에서 400%, 라틴 아메리카에서 200% 각각 증가하여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고의적, 비고의적 음주와 관련된 부상이 증가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음주와 관련된 사망자 중 약 20%가 간경화로 죽는데 비해, 음주와 관련된 사망자의 약50%는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고에 의한 부상과 자살, 타살 등으로 죽는다.

음주와 부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른 예를 보면, 한달 동안 멕시코시티의 한개 관찰구역에서 약 200 여명이 음주로 인해 경찰에 고발되거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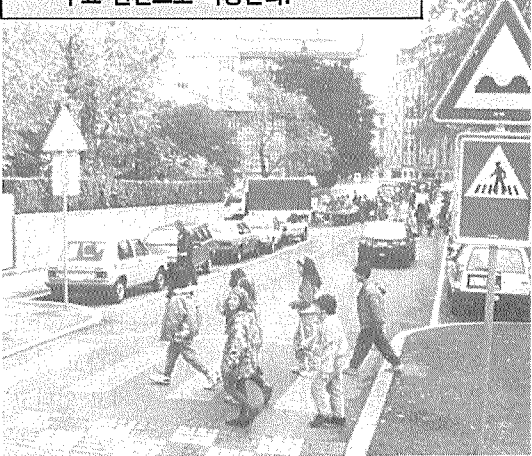
싸움, 폭행, 가정내 불화로 인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65%는 음주와 관련된 폭력의 피해자였다. 3%는 자살기도였다.

공식 집계는 거의 없었지만, 케냐의 보건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취중 소란, 살인, 폭행, 강간, 영아 폭행 등의 폭력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INRETS(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sur les Transports et luer Securite : 국립 교통과 안전 연구소)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상의 위험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극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혈액 1리터당 0.5그램의 알코올이 있는 사람은 보통사람보다 부상의 위험이 두 배 높다.

혈중 알코올량이 1.0그램으로 증가하면 위험이 보통사람의 23배가 되며, 2.0그램이 되면 위험은 80배로 증가한다.

음주는 폭력에 의한 부상, 부부간의 불화, 빈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제 개발도상국에도 사회적 폭력이 번지고 있다

-기사: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16세 이하 청소년 다섯 명이 친구집에 침입했다 발각되자, 학교 친구의 어머니를 칼로 13차례 찔러 살해했다.

-기사: 한 17세 소녀가 51세 교사와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모와 조부모를 독살했다.

-기사: 10대 네 명이 한 가정집에 침입하여, 현금이 없자 집주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그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농약을 탄 물이 들어있는 욕조에 처박아 그를 질식사 시켰다.

물리적인 폭력이 일반화된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살인은, 한 언론인이 “사회적인 폭력과 물질만능주의의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폭로한 것으로, 비폭력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국가-인도-에서 일어난 일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비극에 직면하여 비슷한 폭력 양상이 전 개발도상국들에서 생기고 있다고 경고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의 권위가 붕괴되고 있고, 도시화와 함께 마약, 범죄, 인구의 과밀화, 실업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담당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회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발도상국에도 번지고 있다고 한다.



전통적 가족 권위가 붕괴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폭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중매체에서 폭력에 대한 기사가 증가함에 따라, 폭력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자에 의하면 높은 대중적 관심에 비해 정부와 개인단체의 반(反) 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수준이 낮아서 명확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은 모든 사회에서 폭력을 법에 의한 강제와 사법, 형사기관만의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폭력에 대한 처벌과 징역은 폭력의 예방과 감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65세 이전의 생명 손실연수

전통적으로, 한 국가의 보건상태는 주요 사망원인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새로운 척도-65세 이전의 손실 생존연수-의 사용이 시도되었다.

1985년 발간된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심장질환과 암에 의해서 380만 생존연수가 손실되는데 비해 부상에 의해서는 이보다 많은 410만 생존연수가 손실된다. 그러나 부상보다 심장질환과 암에 투입되는 연구비가 더 많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조지아 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카터 센터(Carter Center)의 소장인 Dr. Willam Foege는 의도적이거나 우연에 의한 부상이 현재 소외된 주요 보건문제로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폭력 역학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Dr. Mark Rosenberg 의 진술이 이 사실을 웅변한다. : 폭력은 중요한 공중보건문제이다.

폭력의 결과인 부상은—그 부상이 가정에서 가정용 제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우연히 일어났건, 노상(路上)이나 직장에서 발생했건, 개인적인 갈등의 결과로 의도적으로 발생했건 간에—의료 수요와 그에 따른 비용을 의미한다.

미국의 국립 범죄연구소의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추산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 행해진 강간, 구타, 배우자와 아동 학대 등의 “가정내 폭력”에 의해 지출된 비용만도 4천4백만 달러가 넘는다 고 한다.

국가 부상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Bill Weiss는(1992) LA 폭동은 “폭력이 분노와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때 5일 동안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은 사람은 2,000명이 넘었다.

“
살인, 자살,
폭력행위와 결부된
가정 폭력은,
부상이 주요 사망원인이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살인률은 최근 30년간 계속 증가해 왔다. 현재 매년 3만 명이 살해되어 유럽국가들보다 10배나 높다.

미국을 제외한 서구 국가들에서 살인률은 인구 10만 명당 1명 전후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보다 높다.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Jean-Claude Chesnais 는 전체 살인의 1/4에서 1/3정도가 가족 구성원이 가족을 죽인 가정내 살인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가정내 폭력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인용하면, 페루의 한 조사에 의하면 경찰에 신고된 모든 폭행의 75%는 아내 폭행이었다. 방콕에서는 아내의 50%가 남편에 의해 매일 구타당한다.

살인, 자살, 폭력행위의 증가와 결부된 가정 폭력은, 부상에 의한 사망이 감염성·기생충성 질환을 제치고, 뇌혈관질환과 악성종양에 이어 세번째 사망원인으로 올라서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남녀 모두에서 동일하다. <계속> ㉞